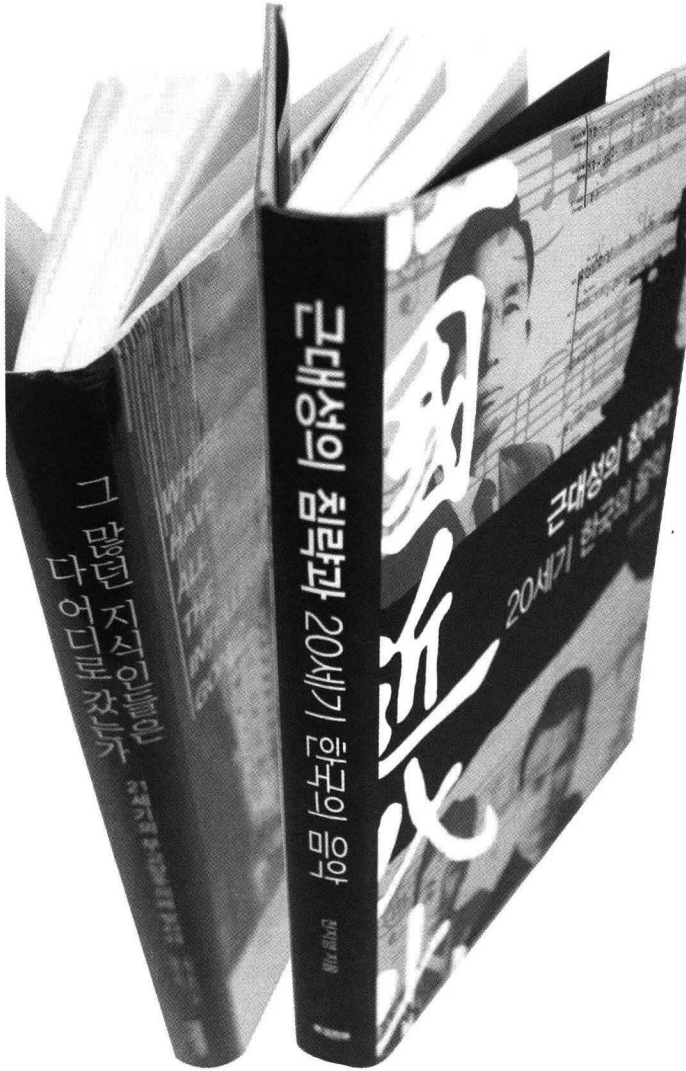


근대성 극복과 지식인



《근대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 전지영 지음 | 북코리아 | 316쪽 | 값 15,000원
 《그 많던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프랭크 퓨레디 지음 | 정병선 옮김 | 청어람미디어 | 256쪽 | 값 12,000원

● 이 글을 쓴 박홍규는

영남대학교 법과대학과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국 노팅엄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했으며 일본 오사카대학교, 리츠메이칸 대학교, 고베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노동법》(삼영사) 《내 친구 빈센트》(소나무) 외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문화와 제국주의》(문예출판사) 외 다수가 있다.

교수의 업무는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나, 가끔은 지식인으로서 글쓰기나 사회참여도 한다. 나는 그런 글쓰기를 내가 전공하는 노동법이 그러하듯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삼아 왔다. 그래서 가령 베토벤이나 반 고흐를 노동자 예술가로 해석하고 노동자가 읽도록 책을 썼다. 물론 그런 책들을 노동자들이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고 도리어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는 듯하나 언젠가는 그들이 많이 읽어 주리라고 기대한다. 노동법을 알 뿐만 아니라 베토벤을 듣고 반 고흐를 보는 교양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좀더 나아지리라는 소박한 꿈에서다. 교양은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동자의 것이 되어야 참된 교양이라고 본다. 사실 베토벤이나 반 고흐나 노동자로서 노동자를 위한 음악과 미술을 추구했으나, 아직 우리의 그들은 계급적이다.

흔히들 음악은 정치나 사회와 무관하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음악책들은 하나같이 음악 자체나 음악가 주변의 이야기로만 가득하여 음악을 사회적으로 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가라는 의문까지 갖게 하는 풍토에서 전지영의 《근대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은 너무나 반가운 단비이다. 최근 몇 년 간 저자의 신랄한 평론활동과 방송활동에 주목한 사람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논의를 제공하는, 30대 젊은 음악학자의 학문적 탐구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서이기는 하지만 음악에 문외한인 내가 단숨에 읽을 수 있었을 정도로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장점으로도 빛나는 교양서이다. 아마도 저자의 음악사랑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이 육화된 결과이리라. 나는 그 논지에 일부 찬성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이랴. 어쩌면 인연과 학연 따위가 판을 치는 음악계에서 이런 책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놀랍기도 하고, 혹시나 이런 책으로 저자의 장래에 어떤 장애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기우에서라도 더욱더 큰 박수를 보낸다.

이 책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 ‘근대성 철폐의 과제’는 본론인 제2부 ‘근대화의 폭력과 20세기 한국의 음악’의 총론으로 그동안 주지되어 온 ‘근대성’ 담론을 정리하면서 노동의 ‘근대주의적’ 한국음악사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근대는 필요 없으며 서구 근대의 폭력의 결과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경험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 당당한 패기에 놀라면서도 과연 그렇게 간단하게 논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만, 후일 저자 스스로 새로운 한국음악사를 체계화할 것을 즐겁게 기대한다. 아울러 서양 근대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도 학수 고대한다. 또한

책 제목처럼 '20세기 한국의 음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한국에서의 서양음악이나 세계음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대한다.

책의 3분의 2가 넘는 제2부는 다시 트로트와 국악에 대한 비판으로 나누어진다. 트로트에 대한 그동안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트로트의 역사를 설명한 뒤, 저자는 트로트를 왜색이라는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역사가 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트로트와 함께 존재한 대중 바보만들기 라디오나 TV, 영화 등을 과연 역사성만을 이유로 옹호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것이 역사분석의 소재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과연 예술일까? 더욱 주목할 부분인 국악의 경우, 군사정권과 결탁하여 타락한 점을 비판하고 최근의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나는 저자가 국악이 "이 땅의 모든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고 내면화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들이며, 사회변혁의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과연 국악 자체를 비판적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갖지만, 국악이 그런 가치와 변혁을 반드시 이룩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마찬가지로, 국악만이 아니라 모든 음악, 나아가 모든 예술과 학문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역시 그런 희망으로 프랭크 퓨레디의 《그 많던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를 읽었다. 그 제목이나 '21세기의 반교양주의에 맞서다'라는 부제는 마치 고급 교양주의를 다시 주장하는 대단한 엘리트주의의 선언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으나, 저자는 영국의 독립적 사회주의자이고 이 책은 이글턴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의 찬사를 받았으니 천천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도 그 제목과 같은 의문이 제시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리어 지식인이 아닌 전문가나 기능인만이 대학이나 문화계에 넘쳐나고 있어서 차라리 우리에게는 '지식인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져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말이 '일본은 없다'고 하듯이 '지식인은 없다'는 식의 반지식인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지만, 퓨레디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 반지식인주의, 반교양주의이다. 그 단적인 보기가 바로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말이다. 또는 그 앞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신지식인'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고등학교, 그것도 상업고등학교 출신이어서 문제고, 이제는 대학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따위의 망언을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의 대학생은 물론 교수까지도 토막 상식의 기능인이 지 열정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교양인이 아니다. 그래서 근대의 죽음을 선언한 리오타르는 교수의 죽음도 선언한다. 아니 우리는 대학의 죽음을 본다. 퓨레디가 그 책의 서론 '무교양의 나라를 둘러본 사적인 여행기'는 영국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무교양주의의 그것이다. 예술과 학문이 실용성이나 도구주의 또는 산업주의의 지배를 받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풍토 바로 그것이다.

퓨레디는 제1장 '지식인의 가치하락' 마지막에서 "대다수 대학 교수들은 똑똑한 직업인이나 빈틈없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슬프게도 그들은 공공적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할 문화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쓴다.

이어 제2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한 현대사상에 의해 우리 시대는 '사소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 지식과 지식인의 전문화가 생겨났다고 분석한다. "우리는 보편적 지식은 외면하고 미시적 지식을 개발하려는 경향만 발전시켜" 천박한 지적 무교양주의를 강화한다. 그 결과 지식인은 더 이상 공공의 논쟁에 참여하지 않아 범사회적인 '바보 만들기' (제3장)가 초래된다. 또한 '사회공학의 요구' (제4장)에 의해 대학은 그 자체가 산업이 되어 그 고유한 자원이 훼손되고 문화는 오락으로 타락한다. 그래서 '이부의 문화' (제5장), '대중을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시대' (제6장)가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책 전체를 통해 저자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관심영역이 광범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할 지식인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있다. 대학과 문화가 방향을 상실하고 대중 바보 만들기에 빠져 있어서 대중을 더 교양 있게 하기 위한 교양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전지영이 부정한 근대성에 있는지도 모른다. 전지영은 퓨레디가 비판하는 반교양주의의 원흉인 상대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우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퓨레디는 심지어 포스트모더니즘은 자본주의와 결탁했다고도 비판한다. 물론 전지영이나 퓨레디는 모두 인간의 잠재력과 미덕, 그리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믿으며, 그렇다면 퓨레디가 근대성에서 그것을 찾든, 전지영이 근대성의 철폐에서 그것을 찾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근대성 극복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치열하게 이어져야 하나, 문제는 전지영의 책이나 퓨레디의 책이 노동자를 비롯한 대중에게 진정한 교양을 쌓게 하려는 훌륭한 노력이라는 점이다. 